

2020.5.15

랩지노믹스 084650

탐방노트

●
Mid-small cap
Analyst 윤주호
02. 6454-4876
juho.yoon@meritz.co.kr

▶ 기본사항

- '02년 설립, '16년 코넥스, '19년 코스닥 이전 상장한 체외진단 전문 기업
- 매출구성('19년) : 일반진단 44%, 분자진단 35%, 용역 21%
- 주주구성 : 진승현 11%, 자사주 1.1%

▶ 주요제품군 및 사업분야

- 체외진단(IVD)는 생체에서 유래된 혈액, 소변, 타액 등을 이용하여 질병을 진단, 예후, 확진, 모니터링을 의미하며 초음파, 내시경, CT, MRI를 이용하는 체내진단과 대비되는 방식임
- 세계 체외시장 트렌드는 '18년 526억달러에서 23E 714억 달러로 연평균성장률(CAGR) +6.7%성장 예상. 이 중 분자진단은 CAGR +8.7% 수준으로 체외 진단 성장률보다 높음.
- 세계 유전자 검사시장은 '18년 64억달러에서 24E 117억달러로 CAGR +10% 성장하는 시장. 동사 PGS 매출은 '18년 1억원에서 '19년 35억원으로 매출 확대 중

▶ 투자포인트 (Investment Points)

- 진단키트 수출에서의 기회

- * 코로나19관련 진단방법은 분자진단과 면역화학 진단(항체 이용)으로 나뉨. 분자진단은 항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위해 다양한 PCR 기기(추출기, 증폭기, 분석기 등) 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사람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종류는 229E 등 총 6가지로 감기와 중증폐렴을 유발.
- * 핵산증폭방법(PCR)을 이용한 분자진단 키트 개발 완료하였으며 다양한 감염성 질환 및 미생물 병원체 검출 가능한 진단용 키트 개발. KFDA 수출용 체외진단 의료기기 인허가 획득 이후 수출 물량 증가 중
- * '19년 연간 1억원 미만의 국내 내수 위주의 진단키트 매출이 '20E 연간 2,000억원 이상으로 성장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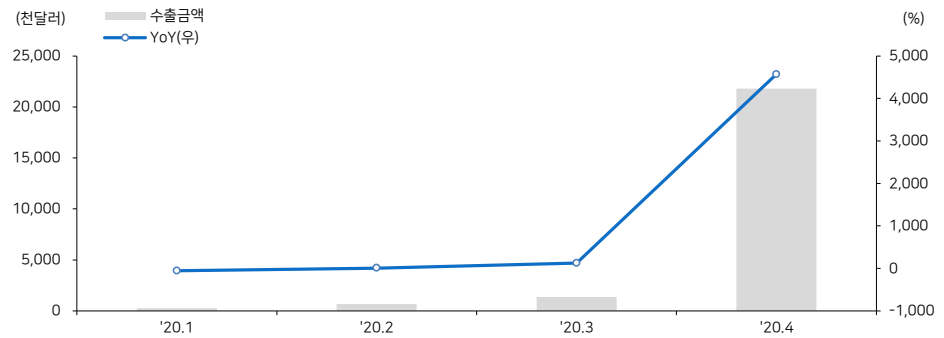
- 세계적인 K브랜드 선호 및 진단키트로 인한 펀더멘털의 변화

- * '20.5월 기준 중국은 중국산 의료품의 품질논란으로 방역물자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비롯하여 마스크, 방호복, 인공호흡기, 비접촉 체온기 등에 대한 시장조달무역(수출 간소화)을 중단함. 이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훌륭한 대처를 통한 'K브랜드'방역 이미지를 구축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 증가로 동사의 진단키트 반대 수혜 가능성 대두. 수출지역은 미국, 인도, 중동, 그리스, 이탈리아, 모로코 등 30개국.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하는 인도 현지 G사와 아시아 판권 협의.
- * 진단키트로 수출로 인한 2Q20부터 들어오는 회사의 수익창출은 진단키트의 peak-out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총의 절반 이상, 코로나19가 현 상황 같이 지속 된다는 가정하에 Foward 1년 시가총액만큼의 현금 유입 가능. 이를 이용한 M&A 및 동사제품을 위한 추가 임상, 진단키트로 세계 의료기기 Distributor들과의 신뢰 등을 통한 회사의 펀더멘털 변화 가능성 높음

▶ 재무 및 실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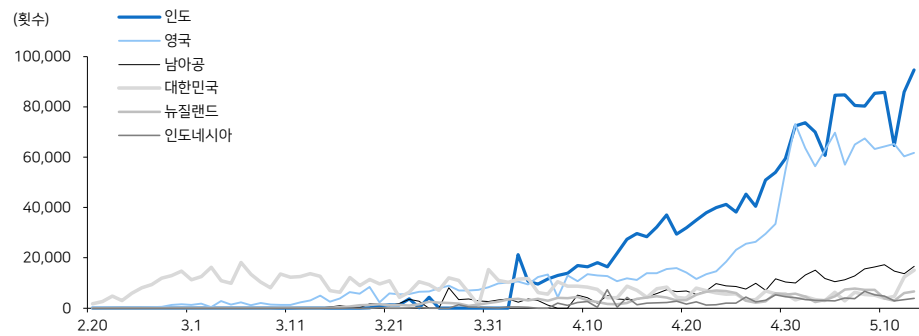
- '20.4월 기준 원재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진단키트 수요를 100% 대응하지 못함. '20.5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및 공급하며 2Q20부터 실적 개선. 분자진단 키트 ASP는 기존 10달러에서 15달러까지 수요 급증으로 상승세. 해외 수주는 '20.7월까지 선주문이 확보되었으며 9월까지 꾸준할 것으로 예상
- 진단키트 생산 CAPA는 일 20만, 주간 100만 테스트로 월 400만 테스트 생산 가능. 월간 풀 가동 가정시 월 매출액은 520~680억원 추정. 진단키트를 유전자키트부터 생산했던 인력의 투입이 바로 가능함에 따라 초기 경험 없이 있던 진단키트 신규 업체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45% 이상) 추정

[그림1] 인도 진단키트 수출현황



자료: 한국무역통계,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진단키트 테스트 현황



자료: Our World in Data,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